대성당 안내 소책자

역사

성당의 건축은 1218년 창시되는 그리고 1315년 끝나는 것으로 추정되는 기간 동안 이루어졌다. 이 기간은 1260년 일요일에 대성당의 첫 번째 미사가 거행되었을 때 중단되었다. 그러나 이것은 1348년 그것을 완전히 파괴한 흑사병 이전에 이루어졌다. 이 기간 동안 건축가들은 성당의 주요 부분을 지었다. 현재 이것은 "Gothic" 스타일 건축의 최고의 예시로 간주되고 있다. 성당은 일요일 성당의 주요 예배 장소이다. 이것은 "Cathedral" 이라는 단어의 어원이기도 하다. 이것은 라틴어로 "일요일" 을 의미하는 "Dominica" 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다. 이것은 그 건축자들의 열정을 보여주는 것이다. 이것은 그 시대의 가장 위대한 건축물 중 하나이다. 이것은 그 시대의 가장 위대한 건축물 중 하나이다. 이것은 그 시대의 가장 위대한 건축물 중 하나